

배우 숨소리까지...소극장 매력 빠져보자

26일~11월 7일 광주소극장축제
너랑나랑·파랑새 등 참여
연극·무용 등 11개 작품 공연

소극장의 매력은 무대 가까이서 연극을 관람하며 배우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연극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제24회 광주소극장축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 예린소극장, 문예정터, 씨어터연바람 등 광주지역 10개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광주소극장축제는 지역 극단 간의 화합과 지역의 연극 발전을 위해 1998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 축제는 (사)한국소극장협회 광주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아트컬처 너랑나랑, 극단 진달래피네·청춘·파랑새·토박이·시민, 태이움직임연구소, 푸른연극마을, 유쾌한상상, 하늘땅두드림, 연극문화공동체 DIC 등이 참여해 연극, 무용, 국악 등 11개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아트컬처 너랑나랑이 오는 26-27일 예린소극장에서 축제의 첫 무대를 장식한다. 이들이 선보일 연극 '마요네즈'는 주인공 아정과 그녀의 엄마 사이의 목은 갈등 속에서 펼쳐지는 감정싸움을 다룬다.

이어 극단 진달래피네가 29-30일 문예정터에서 연극 '안녕 여보'를 공연한다. 작품은 반복되는 상황 속 남녀간의 변해가는 감정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 이들의 관계를 보여준다.

극단 청춘은 '기억하는 남자'와 '잃어버린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마지막 20분 동안 말하다' (29-30일 예술극장 통)를 선보이며, 극단 파랑새는 방글라데시 민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아빠의 여정을 그린 아동극 '용감한 탄타' (30일 ACC어린이극장)를 공연한다.

태이움직임 교육연구소는 오브제무용극 '종이 한 장으로 떠나는 여행' (30-31일 지니아트홀)을 준비했다. 관객들도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며 종이를 오브제로 무용수들이 일상의 움직임을 몸짓으로 표현한다.

푸른연극마을은 31일-11월 1일 씨어터연바람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오셀로', '맥베스', '햄릿' 등 셰익스피어 작품들의 주요 장면을 춤, 랩,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이는 'HELLO! 셰익스피어'를 무대에 올린다.

극단 토박이는 고령화 사회, 노인의 삶에서 오는 인간성



제24회 광주소극장축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 예린소극장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 모습.

의 상실을 다룬 '꽃이여 바람이여' (11월3-4일 민들레소극장)를 공연하며, 극단 시민은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어느 그놈' (11월5-6일 씨어터연바람)으로 관객과 만난다.

또 유쾌한상상은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명제를 보여주는 '내 아내와 결혼해주세요' (11월5-7일 기본중은극장)를 통해 코로나 19로 생활반경이 축소되고 가족중심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진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준다.

이밖에 하늘땅두드림은 징 울림을 시작으로 대북의 두

드림과 춤을 통해 바람을 형상화한 퍼포먼스와 함께 앉은 반 사물놀이를 각색한 연주를 펼치는 '타무흥취나라사' (11월6일 광주아트홀)를, 연극문화공동체 DIC는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맥베스의 감정을 다양한 오브제와 음악으로 표현한 '맥베스' (11월6-7일 공연일번지)를 선보인다.

관람료는 전석 2만원(학생 1만원)으로 예매는 광주소극장협회로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소극장축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222-700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굿 보러 가세~'

23일 광산농악전수교육관 개관 1주년 공연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 마련된 광산농악전수교육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한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8호 광산농악보존회(사진)는 23일 오후 2시 '굿 보러 가세~'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광산농악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유튜브 채널 '광산농악보존회'를 통해 생중계된다.

공연에서는 '문굿', '당산굿', '샘굿', '마당밭이', '판굿' 등을 비롯해 광주지역의 다양한 농악을 관람할 수 있다.

'문굿'은 농악대가 마을 입구에서 걸립을 허락받기 위해 농악대의 기량을 선보이는 굿이며, '당산굿'은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굿이다. 또 '샘굿'은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축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마당밭이'에서는 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사소리를 재발굴해 복원한 판소리를 들려준다. 마지막 '판굿'은 광산농악의 최고 기량을 한데 모은 것으로 전과정 중 마지막에 행해졌던 과정이다. '마당밭이'로 모든 액을 물린 후 마을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한데 어우러져 신명나는 판을 이루어 마을주민이 화합하고 일상의 피로를 푸는 대동놀이이자 축제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굿 세워라 금순아'

빛고을시민문화관 22일 서울예술단 공연

민속신앙 굿을 소재로 한 신명나는 창작극 '굿 세워라 금순아' (사진)가 펼쳐진다. 오는 22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

이번 공연은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추진하는 우수공연조형기획사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세 번째 공연으로 서울예술단이 출연한다.

작품은 마을을 지키기 위한 당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글월 '문'에 봉우리 '봉'자를 쓰는 '문봉리 마을'이 도로 건설 계획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30년 만에 마을 굿을 복원한다는 내용이다. 타와 단원들의 가무곡과 신나는 사물놀이가 장단 등은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은 연출 권호성, 극작·작사 진남수, 작·편곡 양승환, 음악감독 이슬아, 안무 김준태 등이 맡았다.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가능하며 입장료 5000원, 객석 수 30%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관람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9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진정한 여행은 보는게 아니라 인생·역사 교훈 얻는 것"

영암 출신 서일환 역사칼럼니스트
'역사야톡 8' 펴내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시안(西安)을 보고, 현재를 보려면 베이징(北京)을 보고, 미래를 보려면 상하이(上海)를 보라"는 속담이 있다. '교토(京都)는 과거만 산다. 오사카(大阪)는 오늘 저녁까지만 산다. 도쿄(東京)는 현재만 산다'라는 속담이 있다. 인생은 짧고 세계는 넓고, 역사는 무한하고 인생은 유한하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역사의 교훈을 얻는 것이다."



영암 출신 서일환 역사칼럼니스트가 '역사야톡 8' (다큐디자인)을 펴냈다.

이번 책은 중국, 일본,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을 주제로 종합 무진 역사여행을 떠난다. 지난 2014년부터 펴내기 시작한 '역사야톡'의 8번째 시리즈로, 저자는 매일 저녁 8시 카카오토티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등에 3600여 회의 글을 올렸다. 아침과 저녁 8시에 하루 두 번씩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노력을 10년 가까이 계속해오고 있는 것.

먼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중국에서는 하나라부터 청나라까지 4000년 중국역사를 비롯해 동이, 서용, 남만, 북적, 한족이 만든 중국문화와 중국에서 13번째 소수민족인 조선족 등의 역사를 아우른다.

일본편에서는 '일본을 알아야 극일(克日)도 가능하다'는 주제로 일본 열도 최북단의 두 번째로 큰 섬 홋카이도와 도쿄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 간토,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일본의 중심지 긴키, 일본 열도 최남단의 세 번째 큰 섬 규슈 등을 다룬다.

아시아서는 정기간의 후에 몽골, 앙코르와트와 길링 필드의 나라 캄보디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마지막 남은 지상낙원 라오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를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